

고려관에서 의 대화

(1637년 2월 5일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 내외가 살던

심양의 고려관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볼모:	hostage
빈궁:	the Crown Princess: 세자의 아내
저하:	Your Highness, 세자를 높여 부르는 말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생계:	living, livelihood-
대다:	supply, provide
(문형) -ㄴ 뿐더러, -을뿐더러:	받침 있는 동/형, -았/었- + -을뿐더러 받침 없는 동/형, ㄴ 받침 동/형, 이다/아니다 + -ㄴ 뿐더러 어떤 사실에 더하여 다른 상황이 있음을 나타냄
황무지:	wasteland, wilderness
(문형) -라니, -으라니:	이다/아니다 + -라니 동사 + -으라니 놀람이나 감탄, 믿을 수 없음을 나타냄
속환하다:	ransom
(문형)-ㄴ 다음에야, -는 다음에야	받침 없는/ㄴ로 끝나는 동사, 이다/아니다 + -ㄴ 다음에야 받침 있는 동사 + -은 다음에야 어떤 일, 행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비로소 다음 상황이 가능함을 나타냄
남당:	남천주당의 준말로 1605년 예수회의 마테오 리치 신부가 북경에 세운 성당
흙천감정:	명나라, 청나라 때의 천문대(observatory)의 책임자
예견하다:	predict
(문형) -ㄴ디다, -습디다:	받침 없는/ㄴ로 끝나는 동/형 + -ㄴ디다 ㄴ 아닌 받침 있는 동/형. -았-, -겠- + -습디다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의 사람을 대접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 의견 등을 알려 줌
(천체)역학:	천문학, astronomy
성리학:	neo-confucianism
(문형) -ㄴ 데다가, -는/은 데다가:	받침 없는/ ㄴ로 끝나는 형용사 + -ㄴ 데다가 ㄴ 아닌 받침 있는 형용사 + -은 데다가 동사, 있다, 없다 + -는 데다가 현재의 상태나 행위에 무엇이 덧붙여지는 것을 나타냄

환관:	eunuch
궁녀:	a court lady, a maid of honor
곤여만국전도:	1602년 선교사로 명나라에 온 예수회 신부인 마테오리치가 만든 세계지도
천구의:	a celestial globe
여지구:	globe, 1645년 소현세자가 가지고 들어 온 지구본
기기도설:	1627년 청나라에서 쓰인 서양 기술 역학책으로 1645년 소현세자가 가지고 들어오다.
부디:	please, 마음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부사

[소현세자와 강빈의 시대 연대기]

소현세자	1612년 1월 4일 ~ 1645년 4월 26일
강빈	1611년 ~ 1646년 3월 15일
1623년	인조반정 아버지이며 시아버지인 이종(능양군)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됨
1625년	인조의 맏아들 이왕이 세자가 됨
1627년	정묘호란: 1월~3월
1627년	우의정 강석기의 딸과 결혼: 강빈이 됨
1636년	병자호란: 12월~1637년 1월
1637년	정축화약: 맏아들과 다른 아들 하나를 인질로, 인조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짐이 인질로 잡은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임
1637년	2월 5일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감. 세자내외, 봉립대군 내외
1637년	5월 7일 192명과 함께 심양의 고려관에 도착
	대식구 먹고 사는 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고난의 연속
1639년	6월 왕족(팔왕: 누루하치의 12번째 아들)이 500냥을 보내어 조선의 물건을 팔라고 함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 무역 시작 (종이, 담배, 홍시, 배 등)
	강빈이 거래 등 국제무역시장에 앞장섬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부를 쌓음 -> 청나라 지도층과 교분을 쌓음
	조선 압박하던 것을 풀어 나감
1641년	12월 심양에서 5년째 청나라가 식량을 주지 않겠다고 함
	농사를 직접 지으라며 6곳의 황무지 농장을 줌
	(노가새, 사을고, 왕부촌, 사하보 등)
	성과가 대단하여 필요량의 3배의 곡식 추수, 품질이 좋아 왕족에게

		비싸게 팔.
		강빈이 관리: 많이 추수하는 자에게 상과 칭찬: 일종의 성과급제도
		상받은 사람들: 추수한 돈으로 속환시킨 조선 사람들
		수백명을 속환시킴
		소현세자와 강빈이 백성의 희망이 되자 인조는 두 사람을 견제
1643년	6월 13일	강빈의 아버지 강석기 사망: 강빈이 조선에 왔으나 인조가
		장례식에 가지 못하게 하여 그대로 청나라로 돌아감
1644년	5월 2일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 멸망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겨짐
		이 때 소현세자와 강빈도 북경으로 이사
		이곳에서 서양의 과학기술, 특히 역학과 천주교를 만남
		이들에게 과학기술과 천주교를 알려 준 사람은
		예수회 신부 독일인 아담 샬: 북경의 남당이라는 성당의 신부이며
		흙천감(국립천문대)의 책임자
1645년	2월 1일	조선으로 돌아옴
		이 때 곤여만국전도 (세계지도), 기기도설, 망원경, 자명종, 천구의,
		천문서, 천주교인인 명나라 환관, 궁녀들을 데리고 옴.
1645년	4월 25일	소현세자 사망: 얼굴이 검고 출혈이 있어 독살된 것으로 의심됨
1645년	9월 27일	소현세자의 아들로 원손이었던 석철(경선군)을 폐하고 동생
		봉림대군으로 세자를 삼음
1646년	3월 15일	강빈을 폐출 시키고 같은 날 사약을 내려 죽음
1648년		소현세자와 강빈의 두 아들 (석철: 경선군, 석린: 경완군)
		제주도에서 죽음
		막내아들 석견(경안군)은 1665년 사망
1718년		숙종이 강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회빈”이라는 시호를 내림
1794년		정조가 수원화성을 만들 때 소현세자가 가지고 온 “기기도설”
		이라는 책을 정약용에게 주어 정약용이 거중기, 녹로(포크레인),
		유형거(수레) 등을 만들어 수원화성 완성
1796년		수원화성 완성: 위낙 10년이 걸린다고 하였으나
		“기기도설”책을 이용하여 34 개 월 만에 완성하였다.
		150여년이 뒤쳐진 상황.